

3  
노상호  
SANGHO NOH

노상호 (Sangho Noh)는 일상과 가상세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유희합니다. 이미지들은 드로잉 · 판화 · 페인팅 · 설치 · 프린트 등의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들은 SNS 을 통해 타인에 의해 ‘재생산’ 됩니다. 노상호는 본인의 작품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고 그 반응들을 채집하여 다음 단계의 작품을 시도하고 안착시키는 작업을 마치 퍼포먼스처럼 구현 합니다.

Sangho Noh constructs one world by employing images from an ordinary life and a virtual world; furthermore he plays with it. These images are embodied through various methods: drawings, printings, paintings and prints installations. The generated imageries are reproduced by strangers via Social Networking Service. Noh observes responses from the viewers who encounter his work and gathers them for his next project. This course of attempting and undertaking the new work is dealt with by the artist as if it were a performance.



Magic Wand  
2016  
gouache on canvas  
117 x 73 cm

4  
장재혁  
JANH JANG

장재혁 (Janh Jang)은 현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사회 · 문화 · 종교 ·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 관심은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함과 해결을 위한 고통 등이며, 이 상황을 사람들 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생각해 보길 촉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서로 관계되어 있음을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장재혁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믿고 조소를 기반으로 하되 페인팅 · 드로잉 · 설치 등 다양한 시각적 언어로 표현합니다.

Janh Jang expresses individuals' interests in society, culture, religion and political states of the present. This attention is mainly a struggle for removing irrational and absurd affairs occurred in the contemporary period. He urges viewers to contemplate, share and report this situations. A series of the incidents show that each one is related to the other, rather than being divided. Jang believes that an ability of art is delivering this messages and he continues describing them by applying diverse media such as paintings, drawings and installations with his sculptural foundation.



Evanescent  
2015-2016  
handmade objet with clay  
resin, air-dry clay,  
polymer clay &  
mixed media  
58 x 76 x 150 cm

5  
김미영  
MEEYOUNG KIM

김미영 (Meeyoung Kim)의 페인팅은 작가의 ‘심리적인 공간’ 이 캔버스 위에 특유의 색채와 붓질로 안착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심리적 공간은 작가가 경험하거나 경험할 일상 · 문화 · 무의식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색채는 원색 혹은 각기 혼합되어 특정한 시간적 지역적 색채를 넘어 시공간을 넘나들며, 붓질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져 굵기도 뿌리기도 칠해지기도 하면서 빈 캔버스를 메웁니다.

Meeyoung Kim's paintings show that the artist's unique colours and brush stokes enable her psychological space to settle down on a canvas. This mental space is closely related to not only her own unconscious state but also her ordinary life and culture which she has experienced or would do. Primary or blended colours of her practice cross spatial-temporal realms beyond certain time and areas. Her strokes are unconsciously generated through actions of scratching, spraying and painting, and consequently they fill up a vacant canvas.



Le Pain Perdu à la Ros  
2016  
oil on linen  
24 x 33 cm

SPOT:  
LIGHT 빛을 받을 자리를 마련하다

<SPOT:LIGHT>는 “빛을 받을 자리를 마련하다.” 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빛을 받을 대상은 ‘작가와 작품’이며 이러한 자리를 국내외에 마련하는 것이 <SPOT:LIGHT>의 설립 목적입니다.

<SPOT:LIGHT>전은 ‘미술만을 위한 미술전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해 자신의 언어로 질문을 던지는 작가에게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미술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SPOT:LIGHT>는 국제 미술계 지형도를 읽는 것을 바탕으로 나름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 영민한 감각 속에서 빠르게 움직임을 바꾸며 전시 이상의 무엇이 되길 바라며, 형식 · 내용 · 공간과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분명할 것이 있다면, 동시대를 담을 확고한 의지가 있는 작가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점과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기본 레시피를 유동적으로 혹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SPOT:LIGHT>는 아트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것입니다. 숨은 가치에 눈 볼 수 있도록 작가의 언어를 현실의 언어로 바꾸는 해석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관람자에게 일회성 미술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변경할 의지를 부여해 주는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SPOT:LIGHT>는 기존 미술전시들이 가진 코드를 따르기보다는 편안하고 느슨하게 관람객을 대하되 기본에 충실할 것이며, 경직은 풀되 날렵한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존 시장에서 가고 있는 길과는 다른 우회도로를 찾고자 하며, 그 길은 설사 돌아갈 순 있지만 작가 및 애호가들과 함께 하는 과정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을 추구할 것입니다.

SPOT:  
LIGHT Preparing a spot to receive light

<SPOT:LIGHT> refers to ‘preparing a spot to receive light’. Recipients of the spotlight are artists and artworks, as <SPOT:LIGHT>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for them.

The exhibition <SPOT:LIGHT> is not an art show for only art. We aim to open a door for people who sincerely want to contemplate art and to make opportunities for artists who address questions to the present generation with their own language. On the basis of grasping the geography of the international art world,

<SPOT:LIGHT> would maintain swift approaches with a keen sensibility to create a new meaning of art exhibitions. We will not decide forms, contents, spaces and areas in advance; nothing has been entirely fixed. Only thing we can clarify is the attitudes: being flexible to reach our destination as a cook alters his recipe for better taste and keeping a partnership with artists who are determined to convey contemporary scenes into their practice.

<SPOT:LIGHT> looks forward to greeting visitors, keeping the mind of offering an art concierge service. We will faithfully carry out our role of translating artists' language into a practical one in order to help an audience to discover hidden meanings of the artworks. We hope that our exhibition provides a motivation to change their lifestyle for the spectators, rather than being satisfied with a one-time art show. In this process, <SPOT:LIGHT> will treat our audience in a comfortable and relaxed manner without ignoring the basics, instead of following existing art exhibition trends; we will adopt a deft posture, avoiding a rigid attitude. We are seeking an alternative rout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arket's path. Although it might be a detour, we would constantly pursue ways maximizing pleasure of a process with artists and art-lovers.

우연히  
발견한  
살롱

고려명  
김미영  
노상호  
성유삼  
장재혁

Yeomyoung Koh  
Meeyoung Kim  
Sangho Noh  
Yusam Sung  
Janh Jang

Unexpected  
Salon

2016. 10. 27  
- 11. 2



## 우연히 발견한 살롱

영국에 머물 당시,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집들을 둘러 보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빅토리아 양식, 팔라디안 양식 등과 같이 이전 시대의 건축양식에 따라 지어진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관은 당시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방의 숫자만큼 자물쇠를 채우고 각자의 공간을 나누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과 다른 안을 마주한 순간은 마치 다름이 자연스럽게 혼용된 동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억을 떠올리며 마련한 '우연히 발견한 살롱'은 보이는 외관과 다른 내부의 공간, 그리고 각기 다른 색을 가진 다섯 명의 작업 세계를 볼 수 있는, 작가가 주인공 '아무개 살롱'을 한 곳에 모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마주하였던 그 생경한 감각을 자극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전시 제목인 '우연히 발견한 살롱 Unexpected Salon'은 공간·시대·의미가 상충되는 두 단어인 '우연히 (Unexpected)'와 '살롱 (Sal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살롱이란, 신분을 막론하고 지성인이라면 참석할 수 있었던 사교의 공간으로 진보된 사상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교류의 장소였습니다. 과거 17~18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생겨난 살롱은 주인의 매력과 초대된 손님들의 유명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딴 여러 개의 살롱이 생겨났고, 그 중 '퐁파두르 부인의 살롱'과 같은 유명 살롱은 자유주의 계몽사상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17~18세기 유럽의 시대적 의미를 배경으로 하는 살롱과 같은 고급문화는 어쩌면 우리가 '미술'에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측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술가들이 관람객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 지나치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는 과정일 것이며, 동시대적 의미를 가진 '우연히'는 '살롱'과는 다르게 '개방적이며, 언제·어디에서든지·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뜻을 가질 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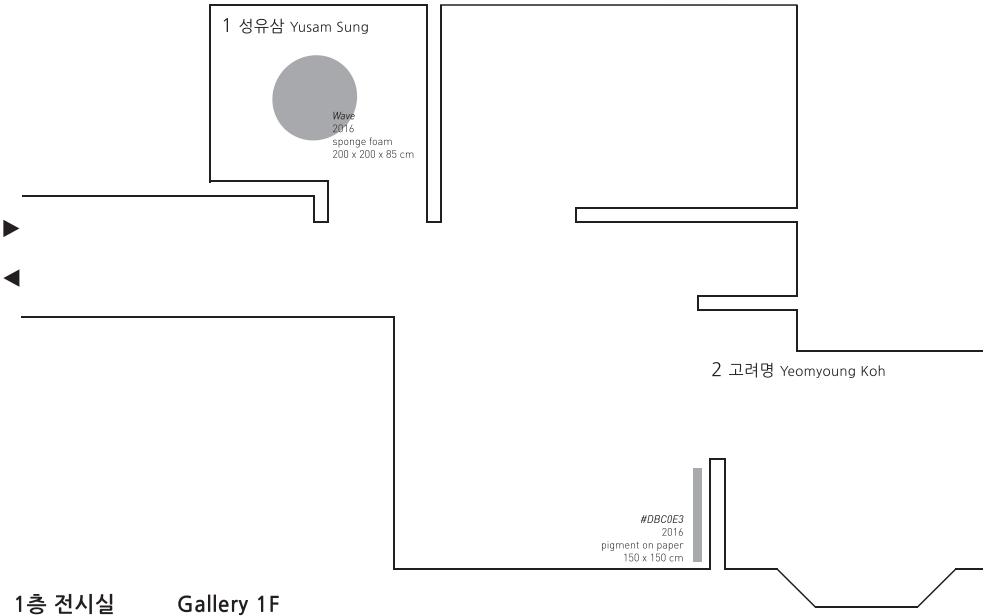
이렇게 상충되는 두 단어를 한 바구니에 담으며 각기 다름을 인식하기 보다는 하나의 선상에서 교차하는 의미를 하나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미술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유에서 한 걸음 나아가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첫 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섯 명의 살롱 주인 (작가)이 예술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초대해 동시대 우리의 살롱에서 말입니다.

## Unexpected Sa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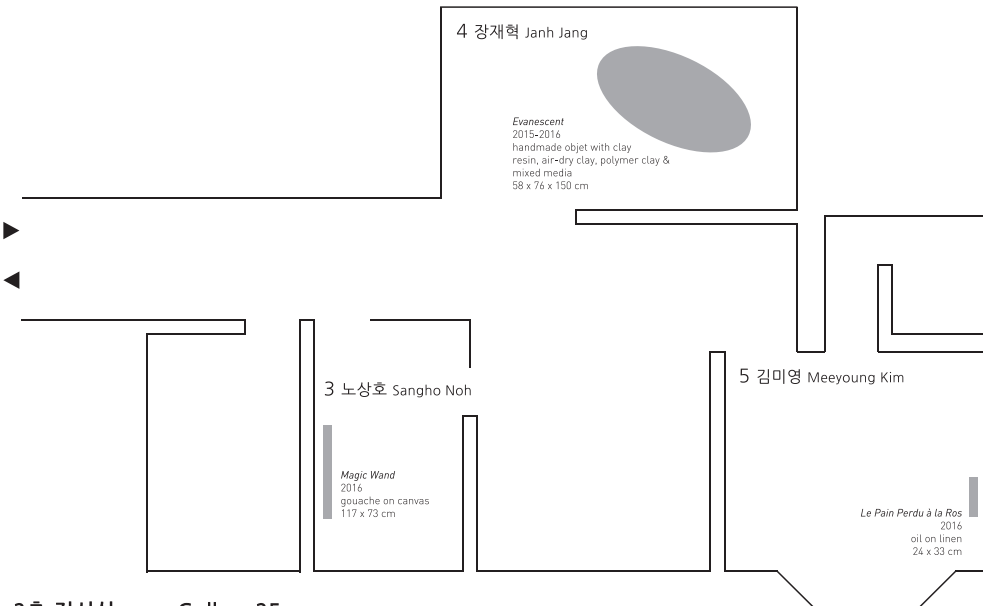
While I was staying in the UK, I once viewed several houses to find a place to rent. Some of the houses were constructed in past ages' architectural modes such as Victorian and Palladian style. Although the buildings' exterior remained their past appearance, a variety of people were sharing the houses by dividing into each individual space with locks as many as the rooms. The moment was when I encountered the inside completely different from its outward figure. In addition, it was when I found a portrait of contemporary people who live in individual spaces under one roof. In this respect, the space of this exhibition looks like a certain era's house stimulating an unfamiliar sensation which I faced in the UK. The inner space and its contrasting facade arouse a sense of similarity to 'Someone's Salon' where provides an opportunity to watch artworks of five artists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exhibition title 'Unexpected Salon' consists of two contradict words, 'Unexpected' and 'Salon', in terms of their places, periods, and lexical origins. In the past, salons were a typical space for socializing where any intellectuals can attend regardless of their social status. New progressive ideas briskly emerged and various opinions were exchanged in this place. Salons first appeared in France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and they were often evaluated by levels of guests' fame and hosts' attraction. As more salons were opened in the names of owners, some of them played a significant role of diffusing Liberalism Enlightenment such as Madame de Pompadour's salon.

What spectators expect from art might be some aspects of high culture like salons whose semantic and historical background stem from Europe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However, artists' wish could be a process in which the audience accidentally faces and finds something. As opposed to the origin of the term, 'Salon', the word 'Unexpected' contains a contemporary meaning that is open to any time, any place and any person. By putting conflicting two words into one basket, we attempt to embrace two different meanings intersecting on one contextual line, rather than perceiving their discrepancy. Making a step forward from 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about art, we hope to establish a foothold to fully comprehend contemporary art. Accordingly, Unexpected Salon's hosts, the five artists are inviting guests who are ready to enjoy art to the salon of our age.



1층 전시실 Gallery 1F



2층 전시실 Gallery 2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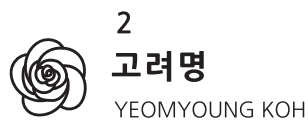


성유삼 (Yusam Sung)은 '재료의 물성'을 통해 대상의 이중적 특징을 보여주려 합니다. 즉, 주제에 대한 표현 의지를 원재료가 가진 <물성>으로 나타냅니다. 스펀지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진 재료로서 부드러워 보이지만 거친 표면을 지녀 작가가 표현하려는 두 개의 상충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표현 대상은 같은 물의 파동이지만 '파도가 쓰나미'로 인식되곤 하는 자연현상 등 내제된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Yusam Sung presents double features of particular targets by revealing their physical properties. In other words, Sung manifests his determination to express the subjects in the source medium's intrinsic properties. Sponges are suitable for two conflicting characteristics that the artist tries to expose, as they imply duality: their soft appearance and rough surfaces. Objects of his representation raise a problem about recognizing inherent experiences. For instance, one of the natural phenomenons, water fluctuations can be understood as either sea waves and tsunami.



Wave  
2016  
sponge foam  
200 x 200 x 85 cm



고려명 (Yeomyoung Koh)은 '촉각적 감각'을 사진에 담아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함으로써 사람의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결과물로서의 사진은 존재하는 대상 이상의 것을 포착하여 작업이 재현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로 '소유'에 대한 욕망을 채워 주는 듯하지만, 결국 그 무엇도 가질 수 없음을 확대된 거대 시각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Yeomyoung Koh's photographs arouse a human instinctive desire through a visual tension containing tactile sensations. As an artistic outcome, the photographs do not indicate just a representation since they capture something more than an existing object itself. Koh's splendid visual images seem to satisfy the desire for possession, yet in the end his magnified giant imageries draw a realisation in which there is no such thing to be possessed.



#DBC0E3  
2016  
pigment on paper  
150 x 150 cm

우연히 발견한 살롱 <Unexpected Salon>  
2016. 10. 27 - 11. 2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38 HSR Epicenter 1, 2층

기간  
2016. 10. 27 (목) - 11. 2 (수)

오픈닝  
2016. 10. 27 (목), 오후 6시 - 오후 10시

관람시간  
2016. 10. 28 (금) - 11월 2일 (수), 오후 1시 - 오후 10시

주차  
전시장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유료주차장 안내>

공용 주차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4-26  
민영 주차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지식재산센터, 한국 지식 재산센터주차장

\* You are not allowed to park in the exhibition area.  
We recommend you to travel by public transport.

<Information>

- 624-26, Yeoksam-dong, Gangnam-gu, Seoul, Korea

-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Center 131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135-980

Organized by

Supported by

HART 에이치엔아트

H-NAP

SPOT:  
LIGHT